

시즌 9호골... 손흥민 화끈한 '피날레'

정규리그 최종전서 팀 500골 신고 부양가 도움 받아 전반에 선제골 팀은 콜로라도전 무승부 아쉬움 최종 3위로 MLS컵 PO에 진출

미국 메이저리거사커 (MLS) 로스앤젤레스 (LA)FC의 '골잡이' 손흥민(33)이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시즌 9호 골을 터트렸다.

손흥민은 19일(한국 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커머시티의 디스 스포팅 굿즈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래피즈와의 2025 MLS 정규리그 34라운드 최종전 원정에서 0-0으로 팽팽하던 전반 42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태극마크를 달고 이달 A매치 2연전에 출전하느라 앞선 2경기에 결장했던 손흥민은 3경기 만에 나선 정규리그 경기에서 시즌 9호 골을 넣었다.

L AFC는 후반 17분 골키퍼 위고 요리스의 패스 실수로 동점 골을 내준 뒤 후반 42분 역전 골까지 허용하며 1-2로 끌려가다 후반 45분 극적인 재동점골이 터지며 2-2로 비겼다.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비긴 L AFC는 승점 60을 기록, 샌디에이고 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이상 승점 63)에 이어 3위로 2025 MLS컵 플레이오프(PO)에 나서게 됐다.



손흥민이 19일(한국 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커머시티의 디스 스포팅 굿즈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래피즈와의 2025 MLS 정규리그 34라운드 최종전에서 전반 42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AFP=연합뉴스

손흥민은 10경기에 출전해 9골, 3도움 (MLS 사무국 기준)으로 데뷔 시즌 정규리그를 마쳤다.

이미 PO 진출을 확정된 L AFC는 PO와 일드카드 진출권에 도전하는 콜로라도를 상대로 손흥민과 드니 부양가를 투톱 스트라이커로 내세워 골 사냥에 나섰다.

손흥민이 코너킥과 프리킥 키퍼를 맡은 가운데 L AFC는 전반 34분 부양가가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뒤 수비수 3명을

따돌리고 시도한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득점 기회를 놓쳤다.

공세를 이어가던 L AFC는 마침내 전반 42분 손흥민의 선제골을 터트렸다.

손흥민은 부양가가 중원에서 찰러준 침투 패스를 받아 빠르게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뒤 한차례 헛다리 짚기로 수비수를 따돌리고 골 지역 왼쪽 앞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대 상단에 볼을 꽂았다.

손흥민의 득점으로 L AFC는 창단 260경

기 만에 정규리그 500호 골을 뽑아냈다. 이는 기존 기록을 35경기나 앞당긴 MLS '최소 경기 500호 골' 신기록으로, 손흥민이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L AFC는 전반 추가시간 손흥민의 왼쪽 코너킥을 공격에 가담한 수비수 라인포티우스가 헤더로 연결한 게 콜로라도 왼쪽 골대를 맞고 나왔고, 손흥민은 도움 추가 기회를 아쉽게 놓쳤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L AFC는 후반 17

분 '베테랑 골키퍼' 요리스의 치명적인 실수로 동점골을 내줬다.

L AFC는 후반 31분 선발로 나선 손흥민을 빼고 제레미 에보비세를 투입하며 전술 변화에 나섰다. 패색이 짙어지던 후반 45분 손흥민 대신 투입된 에보비세의 슈팅이 왼쪽 골대를 맞고 나오자 앤드루 모런이 골 지역 왼쪽에서 재빨리 밀어 넣어 힘겹게 2-2 무승부를 만들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김세영 우승 트로피 5년 만 LPGA BMW안방에서 제패

김세영이 약 5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 상금 230만 달러) 넷째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를 합해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타로 2위 하타오카 나사(일본·20언더파 268타)를 제치고 우승했다.

1라운드부터 선두를 내달린 김세영은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와이어 투와이어 우승을 달성하며 우승 상금 34만5000달러(약 4억9200만 원)를 차지했다.

김세영이 LPGA 투어에서 우승한 건 통산 13번 째이며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약 5년 만이다.



김세영이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티샷을 치고 있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조직위원회



“몸값 올릴 기회”... 가을야구 달구는 FA 3인

한화 김범수, 삼성전서 대타 마무리 투수... 팀 승리 지켜 손아섭 4타수 2안타 활약... 강민호도 전경기출장기량뽐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은 야구인과 팬들의 이목이 쏠리는 무대다. 그래서 선수들의 활약상은 더 강렬하게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다.

가을야구에서 맹활약한 선수들은 스포브리그에서 좋은 대우를 받기도 한다. 지난 해엔 KIA 타이거즈 소속이던 불펜 투수 장현석이 한국시리즈(KS) 5경기 무실점 호투를 발판 삼아 LG 트윈스와 4년 52억 원에 자유계약선수(FA) 대형 계약을 했다.

올해 가을야구에서도 많은 예비 FA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18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에선 한화의 예비 FA 좌완 강속구 투수 김범수가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다. 김범수는 팀이 9-8로 쫓긴 9회 초 1사 1루에서 흔들린 마무리 투수 김서현을 대신해 마운드에 올라 김지찬과 김성윤을 모두 범



타 처리하며 승리를 지켰다.

2015년 한화에 입단한 김범수는 KBO리그에서 보기 드문 좌완 강속구 불펜 투수로 올 시즌 73경기 등판해 2승 1패, 6홀드, 2세이브, 평균자책점 2.25의 쓸쓸한 활약을 펼쳤다. 한화의 예비 FA 외야수 손아섭도 올 시즌 가을무대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삼성포 PO 1차전에서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

했다. 그는 프로 통산 준PO 22경기에서 타율 0.291, PO 16경기에서 타율 0.400을 기록하는 등 포스트시즌 통산 타율 0.342로 강한 모습을 이어갔다.

삼성 예비 FA 포수 강민호는 올 가을을 타격에선 다소 부침을 겪지만 안방에서 안정적으로 투수들을 리드하며 중심을 잡는다. 강민호는 NC 다이노스와 외야수 김재현, 김민호는 NC 다이노스와 외야수 김재현, 김민호는 NC 다이노스와 외야수 김재현 2경기, SSG 랜더스와 준PO 4경기 등 가을야구에서 교체없이 전경기출장하고 있다.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일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